"행복하여라.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" (마태 5,9)

평화와 사랑 전파하기.

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요?

이런 이들이 아니에요:

- 태평한 이들,

- 대평안 이글,
 평온함을 사랑하는 이들,
 분쟁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,
 본성적으로 회유적으로 보이지만, 자주 방해 받기를 원치 않고 귀찮은 일을 원하지 않는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이들.



이런 이들은 아니에요:

• 도발 당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반응하지 않는 선량하다는 사람들.

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:

• 평화를 참으로 사랑하여 분쟁에 끼어들어 평화를 가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.

자신 안에 평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.

어떻게 평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?

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태도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의 뜻을 하면서 에요.

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노력해요.

- •관계를 이루고,
-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, 긴장을 완화하고, 가족, 직장 및 학교 스포츠, 국가들 사이에서 냉전 상태를 해체하고자 해요

Parola di Vita

centro.rpu@focolare.org



"행복하여라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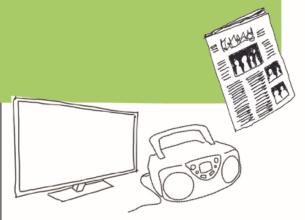
어디서?

이렇다는 것을 알 때 너의 집에서도:

- •아버지가 삼촌과 다투고 나서 한번도 말을 걸지 않을 때.
-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윗집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을 때.

혹은:

- 직장 동료들끼리 경쟁할 때.
- 네 자신이 학교 친구들과 싸움 중일 때
- 스포츠 동우회 사이의 관계가 항상 모범적이지는 않을 때



• 다른 이들을 넘어서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너를 지배할 때.

주변을 둘러 보면 텔레비전, 신문, 라디오가 매일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병원이며 국가는 종종 너무나 큰 병을 앓고 있어서 긴장 관계와 지속 불가능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해요.





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

우선, 세계 곳곳에 사랑을 전파하면서 에요..

그리고 주변에서 평화가 위협받을 때 주의해서 개입 할 것이에요. 드물지 않게 사랑으로 끝까지 경청 하기만 해도 싸움 중에 있는 이들이 평화의 해결책을 찾아요. 종종 사소한 일로 인해 중단 된 관계가 회복 되기 전까지 너는 안심하지 않을 것이에요.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해요. 한 랍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.

"미래의 왕국은 기꺼이 농담을 하는 이들의 것인데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이들이기 때문이다.